

6·4 지방선거 확대경

‘3선 도전’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8명 성공할까

# 경쟁 후보에, 정치권 견제까지... ‘산넘어 산’

## ‘무공천’ 현역 유리한 상황 “2선으로 제한”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현행 3연임인 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광주·전남지역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의 3선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최근 전국 상황을 고려해볼 때 재선의 광역·기초단체장 대부분이 3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지역에선 이러한 영향이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3선에 도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광주는 송광은 북구청장 1명 뿐이며, 전남에서는 이명홍 장흥군수, 정중

해 보성군수, 박병종 고흥군수, 박우람 신안군수, 김일태 영암군수, 서기동 구례군수, 정기호 영광군수 등 7명이다.

이들은 탄탄한 조직 등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해 3선 도전에 나서고 있고, 이에 맞서는 출마예정자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들의 ‘3선 성공이나’ ‘신인 대거 진출이나’를 놓고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3선 성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껏 광주에서는 기초단체장 1명, 전남에서는 광역단체장 포함해 7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3선 도전자들이 경쟁 후보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견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3선 성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경쟁 후보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을 인용해 견제 심리를 자극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천에 더 이상 연연할 필

요가 없어지는 데다 3선 성공 이후 사실상 자신들의 경쟁상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3선 단체장을 꺼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3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폐해가 여러 곳에서 불거지면서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2연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선 단체장들의 경우 ‘더 할 것도 아닌데’라는 심리 때문에 만사태평으로 인한 단체장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에 대해 3연임 제한을 없애 현직 자치단체장의 일하라는 의지를 높이고, 레임덕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반면 3연임 제한을 풀었다가 지방권력이 독점화되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민주당 모 국회의원은 “단체장이 3선인 자치단체는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일

부 단체장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기초단체장 무공천을 계기로 광역·기초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도 지난 1월 광역단체장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과 인사를 선거용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 데다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한 탓에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하지 않고 단체장 연임 제한만 제기하면서 지역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옛날 선비들은 봄의 길목에서 탐매(探梅) 풍류를 즐겼다. 춘심을 흔들며 건똥 불어온 꽃샘바람 따라 서둘러 매화 구경에 나섰다.

선비들은 매화꽃 한 송이를 복사꽃 일만 송이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할 만큼 매화를 지극히 사랑했다. “매화는 한평생 맑고 올곧은 선비정신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이리라. 설중심매(雪中尋梅), 눈 속에 핀 매화를 찾다. 그래서 선비들은, 매화는 인고를 생각하면서 피는 꽃이라고 했었다.

지난 주말, 우리 부부는 선비들의 탐매 풍류를 흉내 내기 위해 급한 마음 다독이며 가까운 친지와 함께 선암사로 향했다. 선암사에는 600년 된 선암대 외에도 700년 된 영산홍·자산홍 한 쌍과 650년 된 와송 등, 오래된 화목이 많기도 하거니와 고졸한 옛스러움을 오롯이 간직한 채, 아늑하고 맑은 불온기(佛溫氣)가 느껴지는 절 집이라, 마음이 메마를 때 자주 찾곤 한다.

둘러, 납월홍매(臘月紅梅)를 보러 금둔사로 향했다. 금둔사 납월홍매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요즘 여행 상품으로 뜰 정도다. 불가에서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음력 선달을 납월이라 하고 선달에 피는 홍매를 납월홍매라 한다.

선암사에 낙안읍성 방향으로 30분쯤 달리 급전산 골짜기로 휘어들자 성벽처럼 에두른 돌담 안에 소박한 집집이 보였다. 가녀린 여인의 파눈물 같은 꽃잎이 찬 바람에 몸을 맡겨 날아가는 화르르 지고 있었다. 금둔사 경내에는 한국 토종 매화나무 100여 그루가 부처님 영화미소 같은 꽃을 터뜨려 적멸화공을 이루었다.

1825년에 씨앗으로 심은 대웅전 오른쪽 첫 번째 납월홍매에서부터 여섯 번째 나무까지 돌아보면서, 마음과 귀로 은은한 매향을 들이마셨다. 어느새 내가 꽃이 된 것처럼 환희했다.

참매화 향기에 어질어질 취해 있다가 주지 지희(指熾)스님을 만났다. 오래전 선암사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금둔사를 다시 일으켜 돌담을 쌓고 경내에 매화나

## 금둔사 납월홍매 보셨나요

선암사에는 벌써부터 고매를 찾아다니는 탐매 여행객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매화는 마음으로 보고 귀로 듣는 꽃이라고 했다. 탐매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한 상태에서 평정한 마음으로 음미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암매는 백양사의 고불매, 담양 지실의 계당매, 전남대학교의 대명매, 소록도의 수양매와 더불어 호남 5매라 일컫는데 그중 선암매를 으뜸으로 친다. 탐매가들 중에는 색깔이 검붉어 흑매라고도 부르는 화엄사 매화를 으뜸으로 치는 사람도 있다.

선암매와 백양사 고불매 그리고 화엄사 흑매는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전남대 대명매는 광주 북구청에서 기념물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 소록도 수양매는 안타깝게 2년 전 고사했다.

선암사 매화는 아직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았다. 원통전 뒤 6백년 된 고매는 거대한 가지 끝에 눈물처럼 맺힌 꽃망울이 곧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아, 꽃이 피고 진 600년의 아득한 시간은 소멸이 아니고 깨달음이었으리라.

차라리 활짝 피어 흔이 날아가 버린 모습보다는 꿈을 꾸듯 한껏 부풀어오른 꽃망울이 더 아름다웠다. 매화는 망울졌을 때, 활짝 피었을 때, 낙화할 때 이렇게 못해도 세 번은 봐야 한다.

두 번을 더 오기로 하고 아쉬운 발길을

무릎 심어 가꾼 지허스님. ‘지허스님의 차’ 저자로도 유명하다.

매화는 아침에 꽃망울이 맺혔다가 낮에 활짝 피고 밤이 되면 추위 때문에 잔뜩 움츠렸다가 숨을 거두며 푹 떨어지고 만다는 것. 그래서 스님은 추위에 떠는 매화를 생각하면 너무 애잔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울수록 매화는 그 향기가 더 짙고 낙화 또한 슬프도록 아름답다지 않은가. 스님은 선암산 소계당에서 손수 재배하고 덕은 차 천강월(千江月)을 대접해 주었다. ‘천강월’은 달빛이 천개의 강물을 적신다는 의미란다. 차향과 매향이 어우러지며 땀속으로 스며들어 마음이 해탈아졌다. 스님은 차를 마시면서 이인로의 매화시를 읊었다.

“고아산 신선 고운 살결에 눈으로 못지어 입고/ 향기로운 입술로 새벽이슬에 구슬을 마시는구나/ 속된 꽃술이 봄철 붉은 꽃에 물드는 것 싫어서/ 신선이 사는 요대 향해 화 타고 날아가려 하는구나.”

스님은 추위 속에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 눈물이 난다면서도, 낙화를 학이 날아가는 것에 비유한 시로 애련함을 달래는 듯했다. 상큼하고 예쁜 매향과 천강월 향기를 눈과 입과 귀에 가득 담고 돌아오면 세 번은 봐야 한다. <소설가>



지진 해일 피해자 추모 풍선

11일 일본의 미야기현 나토리리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2011년 지진 해일 피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학생들이 비둘기 모양의 풍선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공직자 선거개입 차단

### 전남도 특별감찰단 운영

전남도는 11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4개 반 12명으로 ‘특별감찰단’을 꾸려, 강도 높은 특별감찰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활동은 도내 22개 시·군을 물론 공사·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거 과정에서 공직사회 줄서기와 편 가르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심성 행정행태, 대민 행정 지연, 단체장 공석을 틈탄 복무 소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감찰 외에도 지방의회·기업 등과 유착한 이권 개입, 부당한 압력행사 등 지역 토착비리 행위도 함께 감찰한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열린 정례회에서 공청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공무원 선거 중립 자정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지상파 3사 공동출구조사

한국방송협회는 11일 KBS, MBS, SBS 등 지상파 3사가 6·4 지방선거 공동 출구조사 수법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협회 산하에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는 과도한 출구조사 경쟁이 유권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해왔다. /연합뉴스

## 北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687명 공개

### 장성택 부인 김정희 명단 올라

북한이 11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발표는 선거 종료 이틀만에 나온 것이다.

북한 중앙선거위원회는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 선거결과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를 발표, “전국적으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해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에게 100% 찬성투표했다”며 68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김정은 체제에서 신실 세로 떠오른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김수길 군 총정치국 부국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마원춘 당 부부장 등이 대의원에 새로 뽑혔다. /연합뉴스

또 남평 장성택 처형에도 김정희 당 비서는 대의원에 이름을 올렸고 지재룡 주중 대사과 자성남 유엔 대사, 남북간 고위급 접촉에서 수석대표를 맡았던 원동연 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은 이번에 새로 대의원이 됐다.

반면 문경덕 당비서와 로성실 전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등 장성택과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모두 대의원에서 탈락했다.

지난 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함께 투표를 해 관심을 모았던 여동생 김여정도 제13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 주식회사, 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직통, 010-3605-50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1200만원

● 공동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돈 빌려 주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